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65
2020 September / October



Special theme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변화에 앞서 나가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긴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진료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원 식구들, 휴가도 포기한 채 마스크와 함께 몇 개월을 버텨온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9+10월호 스페셜 테마는 오팔세대로 불리우는 신중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팔세대는 영문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5060세대를 일컫습니다. 중년은 다양한 빛깔을 품은 보석 '오팔'처럼 여러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론 바쁜 젊은 날을 지내고 가정을 부양하는 동안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여러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때이기도 하죠. 인생의 변곡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에 액티브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년들을 위협하는 유방암, 회전근개 파열, 부정맥과 심방세동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다이내믹한양에서는 한양대학교의료원 국민안심병원의 풍경을 들여다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방역과 진료체계를 잡아나가는 안심진료소와 선별진료소의 생생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토픽에서는 VR을 활용해 발달장애 아동들의 진료를 돕는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진료 상황을 가상현실 체험으로 미리 만나보고 진료를 볼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방법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유행과 재난, 변화무쌍한 기술의 발전, 노화와 질병 등 인생길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숱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걷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호순







contents

Vol.165 2020 September / October

Life Cycle Guide, 모든 세대의 건강을 튼튼하게 가꾸는 한양대학교의료원 ❹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젊은 시절엔 바쁘게 삶을 꾸려나가느라 스스로를 챙기지 못한 오팔세대. 그들이 액티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년층이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 알아 본다.

02 **즐거운 편지** 변화에 앞서 나가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08 **Dynamic Hanyang** 한양대학교의료원 국민안심병원

14 **Special theme ❶** 유방암 예방도 가능할까?
16 **Special theme ❷** 중년의 어깨 통증
18 **Special theme ❸** 부정맥 진단과 치료의 핵심은?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도입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가수 겸 배우 엄정화와 갑상선암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협력병원 류마앤마디내과의원
28 **Dr. Opera** 안토닌 드보르자크 오페라《루살카》
30 **Dr. Movie** 20세기 영화음악이 저문다. 아듀, 엔니오 모리코네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시인 이상 · 소설가 김유정 폐결핵
34 **고마운 당신에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조희윤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주목할 만한 연구** 건강한 100세를 위한 뇌내혁명
38 **언론 속 한양인**
40 **한양뉴스**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방호복 600벌 기증받아' 외
42 **Hihy 건강저장소**
44 **발전기금**
46 **코로나19 소식**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0년 9월 7일 통권 165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믿는 만큼 더욱더 아이를 자라게 하는 시간

양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키가 커도 작아도, 살이 쪄도 말라도. 모든 아이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양승 교수는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그는 강조한다. 큰 키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양승 교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이어간다.

글. **정라희** 사진. **김재이**

더 건강하게 자랄 아이들을 위해

요즘 부모 사이에서 '키'는 공부만큼 뜨거운 관심사다. 덕분에 양승 교수는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 꽤 유명인사다. 지난해 12월, 양승 교수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부임하면서 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구리까지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다. 소아청소년과 내에서 그의 전문 분야는 성장과 성조숙증, 비만 등이다. 당뇨나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등 내분비와 연결되는 질환들도 다루지만, 대부분 그가 만나는 아이들은 성장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제가 처음 세부 전공을 정할 때만 해도 내분비는 그리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성조숙증 환자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성조숙증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이 사회적으로 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점점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조숙증은 작은 키와 여러모로 관련이 깊다.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면 또래보다 키가 일찍 자라지만 그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키가 작은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사춘기가 빨리 온 것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큰 키를 선호하면서 걱정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다행히 성조숙증이나 이로 인한 성장과 관련한 치료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다.

"네 돌이 지나도 100명 중에 세 번째 이하,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또래 가운데 키가 제일 작다면 한 번쯤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는 여자아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남자아이들도 진료의 대상이에요. 사실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 정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

성장기 아이들에게 키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상담할 때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려 한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뉘앙스를 조금만 고민해서 말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탄탄한 신뢰가 쌓인다.

"성장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질풍노도의 시기일 때가 많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끔 좀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아이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장 치료를 하는 의사는 때로 상담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의 마음은 물론 부모의 심정까지도 헤아려야 한다. 자신이 아이를 병원에 늦게 데려와 치료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자책하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이다. 양승 교수는 성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성장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다"고 말한다. 한 번 진료를 받았을 때 정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은 추적 관찰해야 한다. 첫 검사에서 나온 예측 결과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의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모르는 내용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유명한 국제 저널은 매달 새롭게 살펴보고, 관련 항목은 초록부터 찬찬하게 살펴본 후 전문까지 읽는다. 임상에 집중하는 의사로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최신 흐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2018년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키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마음

의학의 발전 속도가 빠른 지금은 지난날의 지식이 앞으로도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온 보호자와 아이들과 교감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려 노력한다. 성장 치료를 하는 의사이지만, 지나치게 키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는 걱정스럽기도 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과하게 신경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증할 수 없는 식품이나 처치에 투자하기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게 더 좋습니다."

성장의 기본을 이야기하던 양승 교수는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되짚는다. '살이 키로 간다'는 옛말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 최근 그가 비만 문제에 관심을 둔 이유다.

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면서도, 그는 항상 키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한다. 최선의 치료로 키를 자라게 하고, 따스한 응원으로 마음을 자라게 하는 의사. 그렇게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WITH COVID19

한양대학교의료원 국민안심병원

병원 풍경이 한층 삼엄해졌다. 방문객과 환자들의 문진을 작성하는 모습이 당연해지고, 키오스크 기계의 온도 체크를 받는 풍경이 익숙해질 무렵. 차질없는 방역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든든한 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국민안심병원 풍경을 담았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왼쪽부터) 권문정 종합검진센터 간호사, 권순주 감염관리실 파트장, 공건택 수련교육팀 사무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이관홍 소화기내과 전임의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 문진표 작성

한양대학교병원 입구는 내원객들의 문진표 작성이 한창이었다. 내원할 수 있는 출입구마다 문진표 작성 부스와 온도 체크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문진표 작성에 투입되는 되는 인력은 하루에 22명. 이 장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에 36명의 직원들이 출입객 통제 근무를 했다.

"문진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진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환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한번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간혹 증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여 원내의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공건택 수련교육팀 사무원이 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입구도 문진표 작성으로 북적였다. 감염 초기보다 더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익숙하게 문진표를 써내려가는 내원객. 옆으로는 문진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되어 있었다. 장대비 내리는 장마철도, 뙤약볕이 쏟아지는 무더운 날도 입구에 꼿꼿이 서서 2시간씩 내원객들을 맞이하는 이들의 수고로 병원은 안전한 방역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호흡기 질환자도 안심하고 진료보세요 '안심진료소'

안심진료소는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진료소다. 원내와 별도로 분리된 컨테이너 시설에서 운영되는 안심진료소 내부에는 진료실, X-ray 검사실, 접수실 및 진료대기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안심진료소 진료를 시작할 때는 안심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안심진료소가 어떠한 진료소인지 알지 못하고 오시는 분





이 많았고, 대부분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검사하기를 원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인지 안심진료소에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다른 병의원에서는 진료받는 것이 어려워서 안심진료소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소화기내과 이관홍 전임의사가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안심진료소로 오는 환자는 하루 평균 10~20명. 한양대학교구리병원도 비슷한 수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안심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원하는 환자와 대표적인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진료 공간이다. 해외방문 이력이 있거나 국내 유행 지역 방문자이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을 위한 진료소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는 헤어캡, 장갑, 가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를 보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나갈 때마다 진료 공간을 소독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몇 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질환을 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거나 의심되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교수의 답변이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체

체취가 이루어진다. 진료 후 환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검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감염관리실에서 환자에게 안내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확진일 경우 관할 보건소의 연락을 받아 지침을 따르게 된다.

선별진료소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도 방문했다. "격리 기준이 다소 완화된 시점에 해외에서 입국한 파키스탄 환자 분, 중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를 받고, 확진 후 완치를 받곤 했습니다." 종합검진센터 권문정 간호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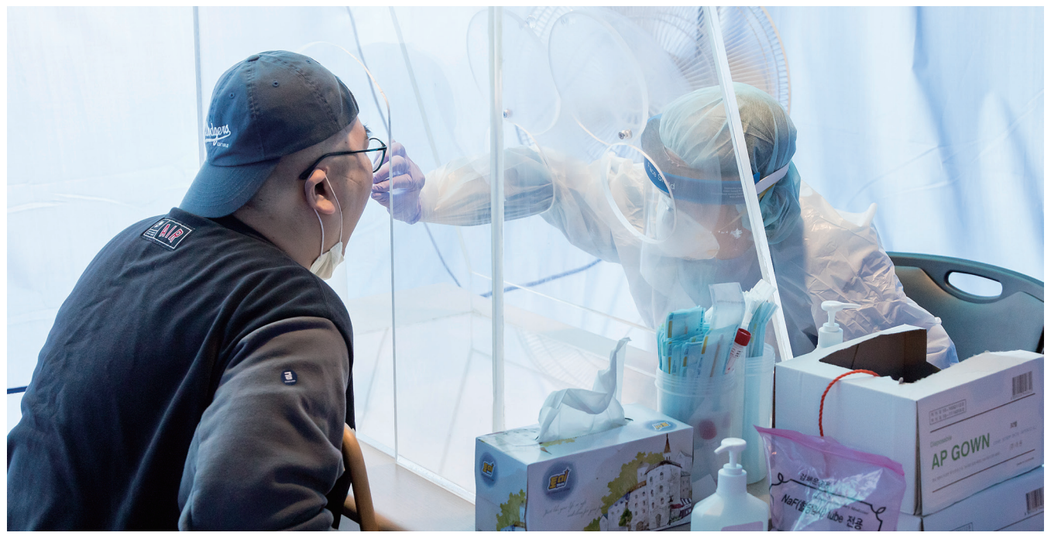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또한 경기 북부의 튼튼한 허리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는 효율성만을 강조한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스루 형식이 아니라 자세한 문진과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문의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의 이동동선을 통해 음압격리병실로 입원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이비인후과 교수의 설명이었다.

오늘도 고생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안심진료소와 선별진료소로 구성된 국민안심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각 진료과 사이를 조율하는 감염관리실의 공이 크다. "감염관리실은 안심진료소와 선별진료소가 잘 운영되도록 여러 부서를 조율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병원의 대처 상황 및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논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상황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 권순주 파트장의 눈에서 피로함과 또렷함이 함께 묻어났다.

"때이른 더위와 긴 장마로 인한 불편감도 있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료 시 불편함으로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시고, 불편함에도 기꺼이 협조해 주셨던 모든 분들과 동료들, 관련 부서 직원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덕분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지만 저보다도 더 힘들고 열악하게 일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저도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점을 묻자 종합검진센터 권문정 간호사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주사실 김보경 간호사가 되려 감사와 응원의 메세지를 남겼다.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원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힘쓰는 오늘. 언젠가 보호구와 방호복을 벗어 던지고, 고생했다고 서로를 다독이며 환히 웃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다려본다.



MINI INTERVIEW



유대현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병원장

정상적인 진료실 환경과 많이 다르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안심병원 진료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갑시다!



이승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

모든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병원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문진을 열심히 하는 덕분에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내, 접수, 진료, 검사 등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관홍 전임의사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안심진료소에서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한양대학교병원 국민안심병원에 신뢰를 가지고 내원하셔도 좋습니다. 덕분에 더 악화되지 않고 소강상태에 들어서고 있으니 모두 합심하여 코로나19를 퇴치하면 좋겠습니다.



권순주 파트장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병원 밖 시설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서 환자분들과 의료진의 불편함이 있지만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잘 협조해주시고 있습니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병원 여러 부서의 노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문정 간호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

국민안심병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하루 빨리 보호장구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협조하고 응원해주시는 환자분들 모두에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건택 사무원
한양대학교병원 수련교육팀

저희 병원 사명에 맞게,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데 일조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오팔세대는 신중년을 대표하는 세대다.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로 액티브한 삶을 즐기는 5060대를 일컫는다. 오팔세대는 영문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 모든 빛깔이 다 담겨있는 보석 오팔에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유사어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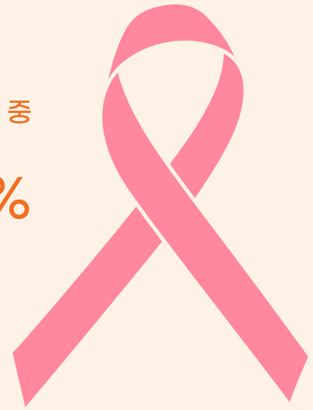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가 주를 이루는 이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젊은 시절엔 삶을 꾸려나가느라 스스로를 챙기지 못했다. 중년층이 되어 바삐 사느라 놓쳤던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오팔세대. 그들이 액티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중년층이 살펴보면 좋을 건강 질환을 알아보자.

국내 유방암 환자

전체 여성 유방암 중

47.6%

50~60대 여성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50대 이상

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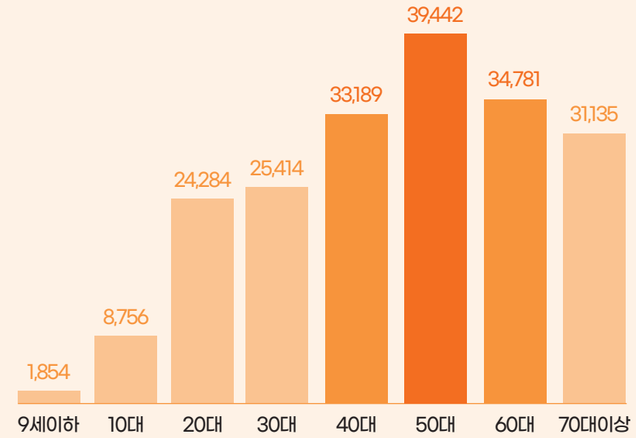
세대 키워드



액티브 시니어 올드족
58개띠 높은 구매력
유튜브 재테크 꽃중년
트로트 뉴트로
갱년기 미코노미스트
모바일 쇼핑
안티에이징 골드파파

국내 연령별 부정맥 환자 비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01
유방암 예방도 가능할까?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글. **정민성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50대 여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

여성은 50대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얼굴의 화끈거림, 관절과 근육의 통증, 수면장애 등 여러 신체적 증상과 심한 감정 기복, 불안감, 우울감, 자신감 상실 등의 심리적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에서 50대는 가족의 중심적인 역할이면서도, 자녀들의 독립으로 허전함을 느끼는 빈집증후군을 겪기도 하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 청소년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겪는 똑같은 호르몬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

한편 여성의 50대는 인생의 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여성은 20대 여성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삶의 중간 지점에서 인생의 큰 변환의 시기를 보내는 50대 여성에게 갑작스러운 암 진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휘청거리게 한다.

50대 여성암 1위 유방암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5~60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은 유방암이다. 5~60대 유방암은 전체 여성 유방암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50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이 아닌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년 이후의 삶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유방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방에 통증이 생기면 먼저 유방암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유방암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방암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유방암은 진행이 되면 비로소 증상이 나타날





50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이 아닌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년 이후의 삶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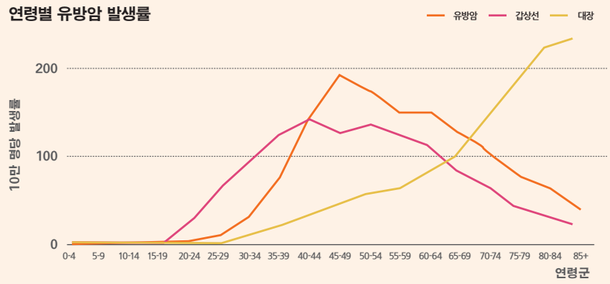
수 있다. 유방에 혹이 만져지지만 아프지는 않은 '무통성 종괴'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도 본인 스스로 발견하려면 보통 2cm 이상의 크기로 진행되어야 알 수 있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와 함몰, 유두 함몰,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혹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유방암의 예방과 정기검진의 중요성

그러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방암의 5~10%는 유전과 관련해서 생기지만 나머지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50대 특히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은 비만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체중 조절, 적절한 운동, 금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등의 생활 습관들이 유방암의 상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유방암에 대한 중요한 인식은 바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조기에 발견된 0기 또는 1기 환자의 5년 전체 생존율이 96~98%로 매우 높은 반면 3기, 4기로 진행될수록 각각 75%, 34%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아직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없다. 더욱이 조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 주의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기검진이다. 정기검진은 유방암이 증상을 일으키기 전 초기 단계에 암을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새로 발표된 우리나라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치밀 유방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

유방암 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치료 성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큰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에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 암 자체에서 오는 두려움과 수술과 치료로 인한 걱정, 외모 변화, 경제적 문제, 가정과 직장에 대한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된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하거나, 가족들과 치료과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유방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연령별 유방암 발생률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02
중년의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



글. **이봉근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회전근개 질환의 발생과 예방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는 4가지 근육(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소원형근)을 통칭하는 말이다. 어깨는 관절운동 범위가 크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어깨의 운동을 담당하는 회전근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포츠 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회전근개질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회전근개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회전근개질환 환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질환인데 팔을 들어 올릴 때 견봉이라는 뼈 부분에 회전근개가 접촉하게 되어 만성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충돌증후군이라고 한다. 충돌증후군은 30~40대에도 증상이 시작되기도 하며 단단한 조직인 견봉에 부드러운 힘줄인 회전근개가 접촉을 하면서 견봉에는 뼈가 자라나거나 단단해지는 현상이 보이고, 그 결과로 회전근개에 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스포츠 활동 중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그리고 보디빌딩과 같이 어깨 관절을 이용한 운동에서 회전근개 손상의 위험이 높다. 특히 수영에서는 접영이나 자유형을 할 때 팔을 올리는 동작이 많은데 이때 충돌증후군 현상이 심해져 파열이 진행될 수 있다.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할 경우에 파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한다. 또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회전근개의 유연성을 높여 주는 것도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과 근력 약화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때의 증상은 통증과 근력 약화이다. 파열된 주위로 염증 현상이 일어날 경우 통증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기면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관절의 강직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치 오십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처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회전근개의 유연성을 높여 주는 것도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럼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오인해 치료가 늦어질 경우 간혹 봉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열이 진행되기도 한다.

파열이 작을 때는 근력 저하보다는 통증이 주요한 증상이며 파열이 점차 커지면서 회전근개의 근력 약화가 생긴다. 이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기 어렵게 된다. 파열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팔 자체를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젊은 환자에서 충돌증후군의 현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견봉의 뼈 일부를 절제하는 견봉성형술을 시행하고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반드시 봉합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팔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며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증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파열이 조금씩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고 파열의 크기가 커진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이 늦어져서 봉합할 수 없다거나 고령의 환자에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환자의 생활 환경과 통증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이다. 통증을 완화시키기만 해도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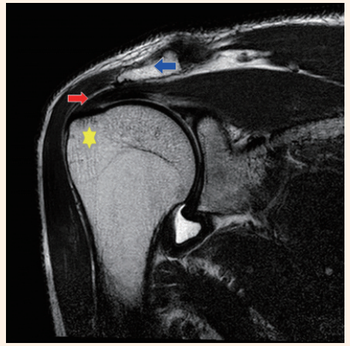


사진 1. 정상 어깨의 자기 공명 영상 : 빨간색 화살표는 회전근개의 극상건, 노란색 별표는 상완골, 파란색 화살표는 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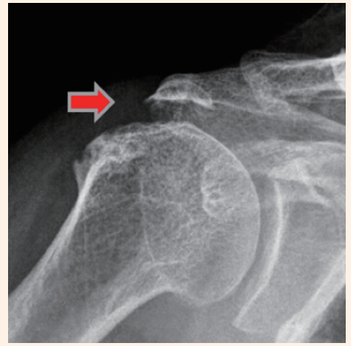


사진 2. 충돌증후군이 진행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환자의 방사선 사진 : 빨간색 화살표는 견봉에 생긴 골극과 경화 소견이 보임(빨간색 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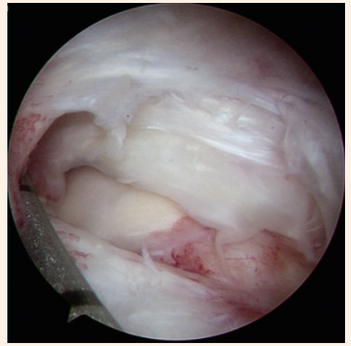


사진 3. 파열된 회전근개의 관절경 사진

오팔세대, 액티브한 삶을 지속하자

03
부정맥 진단과 치료의 핵심은?

부정맥 중 심방세동질환에 대하여



글. **박진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증가하는 심방세동 환자

부정맥은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심방세동이다. 심방세동의 경우 절반은 두근거림이나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게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부정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심방세동(질병 코드 I48)으로 청구된 심방세동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2019년 자료를 연령층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청구된 환자 중 50대가 31,822명(남 23,848명, 여 7,974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40대의 경우 5%임에 반해 급격히 증가한 환자수이다.

식생활 습관과 심방세동 발생의 관계

50대부터 심방세동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방세동 발생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식생활 습관도 관계된다. 20대나 30대부터 잘못 관리되었던 식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50대에 심방세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흡연의 경우 한국인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심방세동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흡연을 하게 되면 폐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폐 기능 감소도 심방세동의 발생 원인이다. 운동이나 활동의 정도도 심방세동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그림 2). 직업적 활동이나 여가를 위한 운동이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적절한 정도의 운동이나 활동은 심방세동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란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누적된 활동 정도가 약 20~35METs 정도를 의미한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비만으로 진행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심방세동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음주 또한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있다. 국내타 병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심방세동 발생이 증가했다. 이처럼 평소 식생활 습관이 심방세동의 발생과 관련되므로 금연하고 절주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50대에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는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심방세동 발생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식생활 습관도 관계된다.

심방세동의 진단과 치료

심방세동은 심전도로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기록해 진단받기도 한다.

심방세동이 진단되었다면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 앞서 말한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약물치료나 시술에 의한 치료를 하더라도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적다. 심방세동의 약물치료는 크게 심방세동 자체에 대한 치료와 그 합병증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심방세동에 의한 증상 즉 심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한 경우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 항부정맥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뇌졸중 위험의 정도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높으므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개발된 새로운 항응고제는 비교적 복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은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보다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는 항부정맥제의 사용에도 잘 조절되지 않고 이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된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심방세동 진단과 치료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여러 심전도 기록 방법을 진단에 활용하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부정맥제와 항응고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미 시술적 치료를 위한 최신의 고주파 도자 절제술을 도입하였으며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룸에서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을 위해 심장 내 초음파 장치와 냉각도자 절제술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림 1. 청구 건수로 본 연도별 심방세동 환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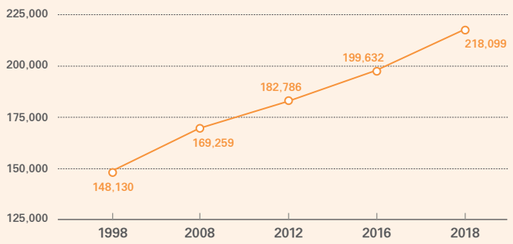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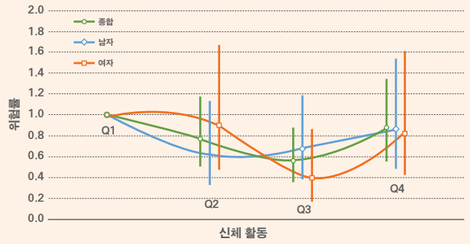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 대상 활동 및 운동 정도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차이



가상현실로 병원을 친근하게

발달의학센터,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 도입

어떤 아이들에게 병원은 어쩐지 낯설고 겁나는 곳이다. 더구나 발달장애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접촉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기도 해 키나 몸무게를 재기도 쉽지 않다. 병원이 어색한 아이들이 불안을 덜고 한결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가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특화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왼쪽부터) 안자혜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 김미정 재활의학과 교수, 김진섭 소아청소년과 교수

병원이 무서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가 가상현실을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이 진료 공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도다. 몇 해 전에 영국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간접 체험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의학적 처치와 진료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한양대학교병원이 처음이다.

"예전에는 병원 방문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인형이나 그림 카드를 활용해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가 많은 요즘 활용하기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병원을 간접 체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 초대 센터장 안동현 교수가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 개발 배경을 밝혔다. 병원 간접 체험은 아이들이 진료 상황을 한층 편안하게 여기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집에서부터 병원 풍경을 눈에 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체험은 처치나 수술을 앞둔 발달장애인은 물론 소아환자들의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의 가상현실 시스템은 연구실이 아닌 진료 현장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VR 안경 없이 별도 공간에서 안심 체험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에는 병원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병원 내에 설치했다. VR 안경을 쓸 필요 없이 따로 마련된 공간에 앉아 삼면으로 된 화면을 보면서 진료 현장 구석구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공간 명칭은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아 '블루룸(Blue room)'으로 붙였다.

"아이들은 VR 안경을 쓸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VR 안경을 쓰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구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 손을 잡았다. 1년 반의 연구 끝에 이번에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에 도입된 시스템은 '가상 현실 조정실'로 통하는 CAVE(Cave Automated Virtual Environment)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적용한 시나리오는 신체 계측과 채혈, 엑스레이 촬영이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계측과 검사를 위해 필요한 채혈과 엑스레이 촬영은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발달장애 부모연대와 치료사 등 진료실을 오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불안 완화'입니다. 이미 경험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덜 불안해하니까요."

발달장애 선도 병원의 책임감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는 발달장애 치료와 관련해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곳이다. 오래 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재활의학과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 치료의 체계를 잡았고, 4년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센터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발달장애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단 두 곳. 최근에는 거점병원이 여덟 곳으로 늘었다.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 등 선도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진료 상황 가상현실 시스템은 다른 발달장애 거점병원에도 좋은 참고사례다.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가상현실을 통해 진료 상황을 간접 체험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불안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실증 연구를 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를 데이터로 산출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다양한 상황에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장애 등의 발달장애는 상황 파악이 다소 느리고 대처 능력이 약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셜 스토리(Social Story)'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사회 적응 훈련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훈련을 그림으로만 수행했는데, 가상현실을 도입하면 좀 더 생생한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의 가상현실 시스템은 연구실이 아닌 진료 현장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MDPh.D 공동연구 병원으로도 지정되어 발달장애 분야의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가상현실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우리 병원의 블루룸은 연구시설이 아닌 실제 병원 안에 있어 발달장애인들이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지요."

2대 센터장인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갖춘 거점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 한 곳"이라고 전하며, 발달장애 거점병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술과 접목해 진료의 새 길을 열어가는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의 여정에 응원을 보낸다.



(왼쪽부터) 원소진 행동치료사, 김보경 발달코디네이션, 김지영 발달코디네이션

MINI INTERVIEW



안동현 명예교수

초대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장

발달장애 아동은 낯선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현실은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접하도록 해 이후 이루어지는 진료 과정을 익숙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발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에 두려움이 있는 일반 소아의 진료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인향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장

소아 대상 VR 선행 연구는 일부 있으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특화된 VR 연구는 드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의학센터의 진료 상황 가상현실 체험 공간인 '블루룸(Blue room)'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닌, 실제 진료 현장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음반과 연기 모두 잡은 한국의 마돈나가 극복한 질병은?

가수 겸 배우 엄정화와 갑상선암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에 얼굴을 비추다가, 가요대상과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해도 위화감이 없는 이가 몇이나 될까? 가요계와 스크린, 안방극장 모두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는 국내에서 남녀를 통틀어도 드물다. 엄정화가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 가수들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이유다.

정리. **편집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몰라 알 수가 없어' 90년대 이상의 세대라면 알 수 밖에 없는 공전의 히트곡의 보유자 엄정화. 그가 부른 노래는 번화가마다 울려퍼졌고, 입고 두른 옷과 아이템은 패션을 선도했다. 물병 헤드폰을 유행시킨 히트곡 '몰라'가 수록된 5집은 55만 장이라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의 정점을 찍었다.

그의 열정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스크린까지 뻗쳤다. 돌연 가수 활동을 중단한 이후 2008년부터 배우 활동으로 전향한 엄정화는 2009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를 비롯해 〈댄싱퀸〉, 〈미쓰 와이프〉, 〈관능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연기 지평을 넓혔다.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댄싱퀸〉 촬영 당시 출연료 2억 8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행보를 보이던 그가 모처럼 스크린을 찾았다. 액션 영화 〈오케이 마담〉의 미영 역으로 분한 것. 2015년 미스 와이프 이후 오랜만에 찾은 스크린에 모처럼 설레는 모습의 그는 배우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등과 함께 합을 맞췄다.

최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자신의 사생활도 최초로 공개한 그는 방송을 통해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엄정화는 9집 앨범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갑상선암 투병에 대해 언급했다. 갑상선암을 판정받고 수술한 그는 6개월간은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숨소리마저 부러웠다는 경험을 털어놓으며 "아직도 한쪽이 마비돼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목소리가 변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자신감도 없고 말도 없어졌다. 목소리에 신경 쓰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된다"며 힘들었던 시간을 고백했다. 또 매일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요가를 하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싱글 라이프를 살고 싶다며 자신의 일상을 공개한 엄정화. 한 때 전 국민이 함께 따라 불렀던 자신의 노랫말처럼.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상을 찾은 것에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글. **지용배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갑상선이란?

갑상선은 목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의 아래에 위치하는 나비모양의 장기로 좌엽과 우엽, 그리고 양엽을 연결하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15~20g이다. 우리 몸 전신에 필요한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는 몸 전체의 기초대사율을 높이고 산소 소모를 증가시키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고, 심장 운동과 위장관 운동을 자극하고 태아의 뇌 발달과 소아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암의 종류와 증상

갑상선에 혹이 생긴 갑상선 결절 중에 약 5~10%가 갑상선암이다. 양성 결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며 주변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이며 이외에도 여포암, 저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이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진행된 경우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양이 커짐에 따라 삼키기가 어렵거나 숨이 찬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갑상선암의 진단

갑상선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가장 유용하다. 이를 통하여 갑상선 결절의 모양과 크기를 평가하여 악성의 가능성을 예상하게 된다. 확진은 세침흡인세포검사 또는 중심부바늘생검을 시행하여 세포의 악성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종양 내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하여 악성 여부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전산화 단층 촬영(CT), 양전자 단층 촬영(PET CT) 등의 영상 검사로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주위조직 침윤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검사 및 갑상선 스캔 검사는 기능성 종양을 감별하는데 이용된다.

갑상선암의 치료

갑상선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이며 갑상선암의 종류, 크기, 결절의 숫자, 주변조직 침윤,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갑상선 전절제 또는 엽절제를 시행하며 림프절 절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게 되면 갑상선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며, 엽절제를 시행한 경우도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갑상선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방사선 요오드를 이용하여 수술 후 남은 갑상선조직 및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드물지만 추가적으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부 방사선 조사 치료를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암은 경구 항암제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갑상선암의 예후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대부분 매우 예후가 좋은 종양이지만 진행된 경우나 조직학적으로 공격적인 암종의 경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암이 그러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랑구 유일의 류마티스 전문 병원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협력병원 / 류마앤마디내과의원

근거리에 든든한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특히 수시로 일상의 불편감을 초래하는 질환일수록 긴 대기줄을 기다리기 힘들어진다.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제한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류마앤마디내과의원은 좋은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지원**



"동네 병의원 중에서는 류마티스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류마앤마디내과의원이 위치한 이 중랑구에는 단 한 곳도 없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뜰하게 환자들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근무했던 권혁희 원장은 올해 3월 새 둥지를 틀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을 환자 곁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병원 이름에서도 느껴졌다. '류마앤마디내과의원'. 병원이 자리한 동네는 중랑구 상봉역 출구 옆으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가운데쯤 위치했다. 두 병원을 두루 거치며 환자들의 진료를 봐 온 그에게는 뜻 깊은 장소처럼 느껴졌다.

"류마티스질환은 단기적으로 완치를 논하기 보다 평생 치료하는 병이라고들 말합니다. 중년과 노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가족력이나 식이 조절이 연관되어 있고,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자연히 의사와 환자의 라포 형성이 중요합니다."

권혁희 원장에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의 근무 경험은 든든한 자산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류마티스 분야 최고 의료진들과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선진 의료장비에 대한 욕심도 이때에 생겨났다.

"개업 소식을 듣고 동료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가장 놀라는 점이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동네의원 급의 장비가 아닌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대학병원에서는 교수의 초음파를 받기 위해서 긴 대기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 병원은 큰 기다림 없이 바로 대학병원급 최신 고사양 장비를 통해 전문의의 초음파 소견을 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통해 이상이 의심될 경우 권 원장의 진료실 옆에 마련된 초음파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초음파 검사 결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전문의의 소견을 들으러 올 필요도 없다. 근골격계 조직 감별 해상력이 뛰어난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절 사이사이의 염증을 보고 증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질환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진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 너무 당연하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제가 동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는 교수님들께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해요."

권 원장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류마티스 분야의 명실상부한 대가라고 자부했다. 또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출신으로서 이제는 중랑구 유일의 류마티스 전문 의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리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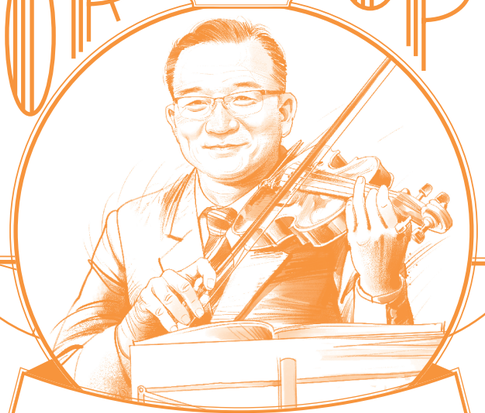
"이제 시작하는 병원으로서 부담도 있지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일상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류마앤마디내과의원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류마앤마디내과의원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05, 3층 **문의** 02-439-4399

DOCTOR OPERA

닥터 오페라



안토닌 드보르자크 오페라 《루살카》

Antonin Dvorak Opera Rusalka

인간을 사랑한 물의 요정, 체코판 '인어공주'

루살카는 슬라브 신화에서 물의 요정을 일컫는다. 젊은 여인이 애인에게 버림받아 자살했거나 임신 중인 여자가 익사한 경우 그 한이 너무 커 이승을 떠나지 못하면 혼령이 된다. 성령 강림절이 있는 6월 말까지 물에서 나와 들과 숲을 돌아다니는 정령들의 부스럭 소리와 한숨 쉬는 소리, 또한 흐르는 물에서 발로 물을 차며 춤추는 소리가 미풍을 타고 들려온다. 그 옆에선 처녀들이 부자 신랑을 만나게 해달라며 숲에 들어가 화환을 던지거나 하천에 화환을 띄워 내려보내는데 흘러가는 모습으로 미래 길흉의 징조를 점친다. 본래 슬라브의 루살카는 결코 사랑스럽거나 로맨틱하지 않고 무섭고 험악한 정령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버림받는 물의 요정으로 묘사하였다.

오페라 ≪루살카≫의 체코어 대본은 카렐 야로미르 에르벤과 보제나 네므코바의 동화를 배경으로 시인인 야로슬라프 크바필(Jaroslav Kvapil)에 의해 1899년 완성되었다. 줄거리는 프리드리히 데 라 모테 푸퀘의 〈운디네〉에서 등장하는 요정들로 체코판 '인어공주' 이야기이다. 대본을 완성한 크바필은 작곡가를 찾았다. 친구들로부터 오페라 주제를 찾고 있던 드보르자크를 소개받았다. 평소 에르벤 작품을 좋아하던 드보르자크는 대본을 읽은 후, 빠른 속도로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초고가 1900년 4월 22일에 시작되었고 11월 말 작품을 완성했으니 7개월 만에 완성한 것이다. 이듬해 3월 31일 프라하에서 첫 공연을 한 후, 이 오페라는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와 더불어 체코를 대표하는 오페라가 되었다.

제1막 달빛에 비친 강기슭 강의 지배자 보드니크는 물의 요정이며, 그의 딸 루살카도 버드나무 가지에 침울하게 앉아있다. 그녀는 때때로 호수에 수영하러 오는 왕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자신은 물결이 되어 왕자를 안았지만, 인간이 된 자신을 그가 안아주기를 바란다며 차가운 호수를 떠나 인간으로서 태양 아래서 살길 원한다고 말한다. 보드니크는 루살카에게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하자, 그녀는 "그들은 사랑에 가득 차 있다!"고 답한다. 그는 딸의 간청을 허락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 아래로 내려가고, 루살카는 아리아 '달에게 보내는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마음을 왕자에게 전해주기를 애원한다.

루살카는 예지바바를 부른다. 예지바바는 요정이 만약 인간이 된 후 요정의 연인한테 배신당하면, 둘 다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루살카는 단념하지 않는다. 예지바바는 루살카에게 인간이 되면, 말하는 능력을 잃을 것이라 경고하며 루살카에게 묘약을 건네준다. 새벽이 오자 왕자가 사냥꾼 무리와 함께 등장한다. 왕자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다. 홀로 남은 그는 갑자기 긴 머리를 어깨에 드리운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보자 환상처럼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다며 입을 맞추자 그는 그녀를 포옹한다. 왕자가 그녀를 이끌자 호수에서 아버지와 자매들의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루살카는 이를 무시한다.

제2막 왕자의 성의 성안 정원에 있는 연못 사냥터 소년들은 왕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는 얼마 후 새 벙어리 신부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벌써 왕자는 결혼식 하객 중 한 명인 아름다운 외국 공주에게 관심을 보인다. 왕자와 루살카가 함께 등장한다. 여전히 왕자는 "나는 너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하객들을 무시하고 왕자에게 접근하며 질투심 많은 그 외국 공주는 '만약 내가 그를 차지할 수 없다면, 모두의 행복이 죽게 할 것이야!'라 중얼거린다. 왕자는 루살카를 무도회에 입을 의상을 준비하라 보내고 왕자는 공주에게 구애하고, 무도회에 들어간다. 보드니크는 갑자기 연못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딸 앞날에 닥칠 운명에 절망한다. 곧 루살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인간이 되길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빈다. 그녀는 왕자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제 인간도 아니고 요정도 아니라며 슬피 운다. 정원에서 왕자는 공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 루살카는 그에게 달려가지만 거부당한다. 공주는 비웃는다.

제3막 호숫가 루살카는 죽기를 원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죽음보다 더 끔직하다는 것을 안다. 루살카의 애원에 예지바바는 "사랑은 짧았고, 슬픔은 지속되겠구나"라고 차갑게 응수하며 만약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을 배신한 인간의 피를 쏟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왕자를 죽이라며 그녀에게 단검을 건네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무기를 호수에 버리고 "그는 행복해야돼, 비록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이라고 말한다. 루살카는 이제 죽음의 영혼이 되어 호수 아래 살면서 오직 밤에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 때만 등장할 수 있다. 그녀의 자매들도 그녀를 거부한다. 그녀는 흐느끼고, 호수로 사라진다. 왕자가 숲속에 하얀 암사슴을 찾다가 길을 잃는다. 그는 루살카의 존재를 깨닫고, "내게 다시 와다오!"라며 말하자 그녀는 기적같이 나타나며 씁쓸히 그에게 다가가며, "나를 배신했니?"라고 묻자 그는 루살카의 용서를 구하고 키스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자신의 입맞춤은 죽음과 저주를 의미한다고 말했으나 그가 단호히 키스하자 그는 그녀의 팔에서 죽고 요정들은 "모든 희생이 다 치러졌다"라고 외친다. 루살카는 인간으로 그를 사랑한 것을 감사하고, 그 영혼을 신에게 위탁하며 호수 아래로 내려간다.

들을 만한 ALBUM



가브리엘라 베르나체코바(루살카),
비슬라우 오크만(왕자), 바츨라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upraphon, 1982)



르네 플레밍(루살카),
벤 헤프너(왕자),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ecca, 1999)



르네 플레밍(루살카),
포트르 베칠라(왕자), 예닉 네제 세겡(지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Decca, 2014, DVD)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 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OCTOR MOVIE

닥터 무비



내 인생의 영화 7

20세기 영화음악이 저문다. 아듀,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를 한 편 본다는 것은 줄거리를 통한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 세상을 관조하는 방식 등을 같이 느낀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떤 영화는 본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운과 잔상이 남는 경우가 있다. 영화가 아우라를 발휘하는 것은 찰나적으로 공감한 배우의 연기(혹은 배우 그 자체), 사연이 담긴 풍광(미장센을 말함), 입에 착 감기는 찰진 대사가 이유일 수 있다. 혹자는 스토리텔링에 풍미를 더하는 향신료 역할을 하는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한다. 영화가 끝나면 스크린은 밝아지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이 머리 속을 아련하게 감도는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나에겐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그랬다.

영화 속 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영화의 구조에서 시작되고 플롯에 의해 바뀌는, 영화의 하부구조로서 작동하는 종속적인 음악이 그것인데, 알프레드 히치콕과 작업했던 미국의 버나드 허먼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음악은 줄거리와 분리할 수 없어 개별적인 부제는 붙지만 영화 속 인물, 사건 전개(갈등 고저, 해소 등)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개별적인 스코어로서의 제목은 있지만 그의 음악은 줄거리를 가진 오페라처럼 각각의 스코어가 완성된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복잡하지 않지만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를 가진다. 서정적이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음악들이다.

세르지오 레오네의 〈석양의 무법자,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966〉는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원작에 해당하는데, 젊은 시절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시그니처인 찡그린 얼굴로 시가를 질겅질겅 씹으며 자신의 기준에 맞춰 타인을 심판하는 안티 할리우드적(권선징악이나 고진감래 따위는 없음)인 B 급 서부영화의 대표작이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 중에는 '빠라바라바~'로 시작되는 하이 톤의 주제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탈리아 영화 음악을 표제화시켰던 니노 로타의 관용적인 음악과는 엄청 다른 느낌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3명이 최후의 결투를 준비할 즈음

나오는 음악 역시 흙먼지로 뒤덮인 사막의 공기를 급속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대중성을 띄게 된 결정적 계기는 〈시네마 천국, 1988〉에서 선보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음악들 때문일 것이다. 어린 시절의 꼬마 토토부터 이름난 감독으로 성장한 이후까지 그의 긴 시절을 느리게 그러나 중요한 순간 빠지지 않고 함께 한 음악이 없었으면 대부였던 알프레도, 삶의 구심점이 되었던 영화관 시네마 파라디소 역시 존재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차분한 피아노 독주로, 때로는 다양한 관악기(팬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에 혹은 비감한 바이올린 선율에 더하여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한 음악들은 향수와 서정성을 잃지 않은 채 변조 없이도 풍부한 음감을 발휘한다. 차분한 피아노 선율로 서서히 유년 시절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Cinema paradiso', 영사실에서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두 사람을 표현한 'Toto and Alfredo'. 그 중에서도 압권은 유명감독이 된 후 다시 고향을 찾은 토토(살바토레)가 작고한 영사실 기사 알프레도가 남긴, 키스 씬으로 구성된 필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은 내 인생의 영화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된다.

세르지오 레오네의 유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1984〉는 기나 긴 영화 러닝 타임과 대공황기에서 1960대까지의 장구한 시간을 빈틈없이 메꾸는 음악의 힘이 압도적이다. 주제곡은 그야 말로 명불허전으로 엄청난 유장함이 온 몸을 휘감는다. 또한 주인공 누들스가 짝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제니퍼 코넬리 'Deborah's theme'는 아름답다 못해 들을 때마다 현기증을 유발시킨다(스탕달 증후군이라 할 만하다). 어린 시절 총에 맞은 어린 도미니크가 고개를 떨구는 장면에서 나오는 'Cockeye's song'은 모리코네가 즐기는 악기인 팬플루트를 강조하여 이어지는 주제곡과 함께 명장면을 만들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미션, 1986〉의 넬라 판타지아는 신부 가브리엘이 원주민에게 들려주는 오보에 연주가 원곡인데, 여기에 가사를 붙여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감독 롤랑 조페의 천천히 내딛는 카메라와 밝디 밝은 햇살과는 대조적인 처연한 멜로디는 묘하게 굳건한 느낌을 준다. 〈러브 어페어, 1994〉의 허밍으로 따라 부르기 쉬운 피아노 솔로곡은 사랑의 멘토로 나오는 캐서린 헵번이 직접 연주하여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준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직접 부탁하여 작업에 참가한 〈헤이트풀 8, 2006〉은 모리코네에게 한참 뒤늦은 아카데미 음악상을 선사하였지만, 이전의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를 알던 관객이라면 금방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노병은 죽지 않았고, 영화의 완성을 위해 왜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삼고초려를 했는지.

20세기를 대표했던 영화음악의 두 거장-버나드 허먼, 엔니오 모리코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문화의 기본단위인 meme과 10분 미만의 영상물을 뜻하는 숏폼 드라마가 득세하는 최근의 영상문화에서 사라진 거장들이 강조하던 선율의 힘은 희석되어 버린다. 아날로그적 멜로디가 소멸된 자리를 AI에 의한 음향효과와 기하학적인 음 높이 변화가 대체하게 되면 앞으로도 영화를 감상한 후에 음악 한 소절로 영화 전체를 기억하게 될 귀납적인 알레고리가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그 만큼 떠나간 모리코네의 빈자리는 크다.

볼 만한 MOVIE



시네마천국(1990)

쥬세페 토르나토레(감독)
마르코 레오나르디(청년 살바토레),
필립 느와레(알프레도),
자고 페렝(중년 살바토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

세르지오 레오네(감독)
로버트 드 니로(누들스),
제임스 우즈(맥스),
제니퍼 코넬리(어린 데보라)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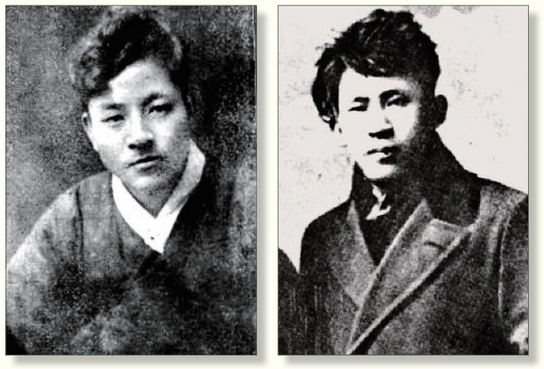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결핵이 휩쓸고 지나간 비운의 시대 한국 문학의 두 천재 이야기

시인 이상 · 소설가 김유정과 폐결핵



글. **김태형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도스토예프스키, 발자크, 조지 오웰, 카프카, 쇼팽, 나이팅게일… 이 다방면의 천재 혹은 위인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 유럽을 휩쓸며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결핵은 기원전 7천 년경 석기시대의 화석에서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를 괴롭혀 왔으며, 우리나라의 소설가 김유정과 천재 시인 이상(李箱)도 결국 결핵의 희생양이었다.

1913년대 한국 문학의 불우한 두 천재인 김유정과 이상은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폐결핵으로 사망까지 여러 면에서 공통된 삶을 살았다. 소설가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에서 1908년 2월 12일 태어나 1915년 어머니를, 1917년 아버지를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더듬게 되었고 이상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몰락한 양반인 백부에게 입양되어 엄격한 유교 교육 등으로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성장기의 결핍과 고난은 두 천재에게 '운명공동체'라는 절절한 연대감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니다 제적된 김유정은 1931년 고향 춘천으로 낙향한 이후 야학 활동에 집중했다. 이때 겪은 일제 치하의 궁핍한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1933년 이후 농촌과 도시의 밑바닥 인생들을 〈총각과 맹꽁이〉, 〈소낙비〉, 〈노닥지〉, 〈동백꽃〉 등의 소설에서 그려낸다. 이상은 백부의 바람대로 보

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나와 건축 기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1930년 조선지에 연재된 장편 소설 〈12월 12일〉로 문학계에 데뷔했으며, 1931년 7월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첫 시집을, 그 해 8월 시 '조감도'와 '삼차각설계도'를 〈조선과 건축〉에 발표했다. 또한 소설 〈지도의 암실〉, 시 '건축무한육면각체'를 내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두 천재의 주요 교류무대였던 구인회는 1933년 8월 당시 문단의 중견작가 9명이 모여 만든 문학 친목단체였다. 이 두 천재는 1935년 봄, 김유정의 신춘문예 당선 축하연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한다. 구인회의 멤버로서 친분을 쌓게 된 둘은 술을 좋아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폐결핵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다 비슷한 시기에 숨을 거두게 된다. 이상은 1931년 한 공사 현장에서 처음 각혈하며 쓰러졌고, 폐결핵으로 계속 고생하던 중 1933년 황해도로 요양을 떠났으나, 온전한 건강을 찾을 수 없었다. 김유정은 1936년 7월 과음과 밤을 새우는 집필로 인한 피로, 흡연으로 인해 폐결핵이 악화되었다가, 서울 정릉 부근의 암자에서 술과 담배를 끊고 요양하며 일시적으로 병세가 호전되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1936년 가을 어느 날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던 김유정에게 이상이 찾아왔는데 "각혈이 어떠십니까?", "그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치질이 여전하십니까?", "그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라는 대화 이후 이상이 동반자살을 제의했는데 이때 김유정이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앞가슴을 풀어헤치며 "이것 좀 보십시오, 명일의 희망이 이글이글 끓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상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이상은 이 장면에 대해 자신의 소설 〈실화〉에서 "유정! 유정만 싫다지 않으면 나는 오늘밤으로 치러버리고 말 작정이었다. 한 개 요물에게 부상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27세를 일기로 하는 불우의 천재가 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유정과 이상이 신성불가침의 찬란한 정사……" 라고 표현했다.

김유정은 1937년 2월 경기도 하남에서 요양을 했는데, 이 시기 동창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맹열이다."라고 표현했다. 결국 1937년 3월 29일 스물 아홉에 폐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그가 죽은 지 19일째 이상도 4월 17일 일본 동경제대부속병원에서 폐결핵 악화로 눈을 감았다. 돌아보면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은 가난으로 인한 영양결핍, 나라와 체제에 대한 분노로 술과 담배에 빠지기도 하여, 폐결핵 환자가 많았다. 흡연, 영양결핍, 만성 음주로 인한 간기능 이상 등이 결핵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주요 인자였음을 알 수 있다.

결핵은 모든 문명과 국가에서 유행했으나, 오랜 기간 불치의 병이었다.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임이 증명되었고, 1882년에야 결핵균이 발견되었다. 결핵균의 발견 이후에도 1943년 스트렙토마이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었다.

우리나라 2018년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70.0명(OECD 평균 11.0)이며 결핵 사망률은 10만 명당 5.0명(OECD 평균 0.9)으로 OECD 회원국 내에서 독보적인 1위이다. 그럼에도 2010년부터 시행된 국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의 영향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치료 성공율을 높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실제 결핵 발생률과 신환자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폐결핵 환자 중 70~80% 정도에서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지만, 감기 등 기타 질환과 구분이 어려워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인 폐결핵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에는 기침, 객담(또는 혈담), 발열(미열과 오한), 무력감(또는 피곤함),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특히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열이 나며 기침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질 경우,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확진을 받기 전까지 주변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큰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성 있는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뿐이다.

고위험군(고령, 면역저하, 당뇨, 흡연, 결핵 환자 노출)의 경우 정기적인 흉부X선 검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결핵 환자의 중요 접촉자 및 특수시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등) 근무자, 단체생활(학교, 군대, 교도소 등) 대상자들에서의 잠복결핵 확인 등이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결핵은 모든 문명과 국가에서 유행했으나, 오랜 기간 치료법이 없는 불치의 병이었으며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임이 증명되었다.



고마운 당신에게

꿈과 책과 눈과 희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희윤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오랜 세월 연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가의 꿈을 품고 살아온 김창운 환자에게 왼쪽 눈은 남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다. 조희윤 교수는 그런 그에게 꿈과 책과 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주치의였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비교적 긴 기다림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반 클리닉'은
은인 같았습니다.

믿음직한 주치의 조희윤 교수님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연단에서 젊은 날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퇴직 즈음하여 찾아온 황반변성. 세계 3대 실명질환이라는 설명에 눈 앞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왼쪽 눈에 지탱하며 살아야 했기에 더 절박했죠. 특히 한시가 급한 황반변성질환 특성상, 비교적 긴 기다림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반 클리닉'은 은인 같았습니다.

조희윤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2018년 10월 10일.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같이 극복해 봅시다."하고 말을 건네는 당신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병의 경과와 치료의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의 태도에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2년여의 주사 치료를 통해 건강한 눈을 찾은 저는, 지금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더 많은 글을 쓰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벌써 2,500시간 가량 되었습니다. 그간 써온 수필과 시를 엮어서 책도 발간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건강한 눈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창운 드림

언제나 고등학교 은사님을
떠올리게 하는 김창운 님과의 인연은
참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어가실 김창운 님께



왼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병원을 찾으신 김창운 님. 오른쪽 눈은 이미 실명된 상황이었고 왼쪽 눈은 삼출물, 출혈이 많이 발생된 황반변성질환이었습니다.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병의 경과에 대한 이해와 자가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김창운 님은 언제나 자신의 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덕분에 병의 경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졌지요.

꾸준한 내원 진료와 환자분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2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1.0의 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사의 간격을 2주씩 점점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황반변성질환의 경우 세계적으로 실명 방지를 위한 노력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질환이므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나 고등학교 은사님을 떠올리게 하는 김창운 님과의 인연은 참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 환자로서 주시는 피드백은 의사인 저에게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좋은 지표가 되고 있지요. 건강한 눈으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곳곳에 전하시기를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조희윤 드림

주목할 만한 연구

건강한 100세를 위한 뇌내혁명



연구자. 김희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한국은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9.5%였던 것이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 2026년은 20.8%(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환자의 절대 숫자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60대 이후지만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병리가 시작되는 것은 30대, 40대부터이므로 젊은 시절부터 뇌건강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나쁜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분야 1. 치매와 신경퇴행성질환 기전연구

고령화 생체자료(혈청, 영상, 인지기능)을 통해 ApoE 유전자 MTHFR유전자, Uric acid 등 새로운 치매의 위험인자를 개발했다. 이 수치는 남, 녀 성별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서 성별에 따라 치매의 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냈고, 신경영상분석을 통해 루게릭병과 루이체 치매의 영상연구를 통해 임상적 특징과 뇌의 특정부위의 이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도는 NYU의 Mony de leon과 같이 Brain Clearance(뇌배출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의 뇌에서 배출경로를 밝혀내었고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의 배출이 더 늦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인지질이 신경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다. 현재 대한치매학회와 신경면역염증연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6500명의 다면적 생체자료(보행, 운동, 영양, 환경)를 확보하여 바이오마커 및 맞춤치료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분야 2. 치매와 신경퇴행성질환 기전연구

일상생활의 영양상태 평가를 통한 Metabolomics(대사체, 일상생활습관에서 얻어지는 정보) 기반 Biomarker 신규 개발을 통해 영양 중재를 통한 기초/전임상/예비임상연구 경험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 염증조절 기반 신경퇴행성질환 병인 발견팀의 일원으로 경북대 의대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The Cell』과 『Nature communication』에 중요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건국대와 협력하여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의 투과도(Permeability)의 증가를 MRI를 통해서 규명하고 Apoe 유전자와 염증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뇌파를 이용한 Preclical Stage의 뇌파 파형을 관찰하여, 실제로 병리 현상만 뇌에 있고 임상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없을 때에도 대상자의 음성, 청력, 뇌파를 분석하는 예후 예측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뇌의 신경망 연결의 효율성을 보는 brain connectome/치매 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치매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의 배출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연구분야 3. 치매와 신경퇴행성질환 기전연구

실제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악화는 영양 불균형,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악화, 잦은 낙상, 삼킴기능 장애로 인한 흡입성 폐렴 등이 악화 요인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골건강과 낙상, 치매 위험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다.

연구분야 4. 치매와 신경퇴행성질환 기전연구

뇌파는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비침습적이고, 상대적으로 검사 가격이 저렴하여, 선별검사의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장애 환자의 시각적 평가에 의한 뇌파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전산화된 정량적 뇌파분석은 섬세한 뇌기능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정상인에서 치매환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지장애 환자의 뇌파를 정량적으로 분석, 기계학습을 통한 인지장애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분야 5. 현재 치료

몸에는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있다. 대체로 바른 아미노산 간의 결합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지만 잘못된 아미노산 간의 결합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한다. 바로 비정상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다. 뭉친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신경 세포들의 이동 통로를 차단한다. 해당 과정에서 뇌세포는 소멸하고 이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연결된다. BAN 2401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극복할 수 있다. BAN 2401은 실타래처럼 엉킨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선별적인 결합을 통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 특히 BAN 2401은 아직 병이 진행되지 않은 조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큰 효력이 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은 맞지만, 질환이 진행된 이후에 약을 공급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알츠하이머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 단기기억력만 떨어진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면 단기기억력이 떨어졌던 환자들의 기억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대부분 제거된다. 이런 시도는 사회적 시선에서 봤을 때도 청신호다. 병 특성상 환자 한 명당 평균 3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알츠하이머병은 주변인들의 일상생활과 직업 능력을 저하시킨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환자를 관리하는 인력들도 절약돼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도 상당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연구계획

치매 환자 진료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바이오 마커의 개발과 함께 Digital therapeutics에 기반한 brain clearance (뇌배출시스템)을 증강시키기 위한 신규 치료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Remarkable research



Brain Atrophy of Secondary REM-Sleep Behavior Disorder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nutrients

The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Homocysteine and Uric Acid Levels with Respect to the MTHFR C677T Polymorphism According to Gender in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 **Brain Atrophy of Secondary REM-Sleep Behavior Disorder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신경퇴행성질환에서 렘수면장애와 연관된 뇌의 해부학적 부위

◀**The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Homocysteine and Uric Acid Levels with Respect to the MTHFRC677T Polymorphism According to Gender in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성별에 따라 MTHFR 유전자 변이가 요산에 미치는 영향: 류마티스내과 전재범 교수팀과 공동연구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0년 6월 ~ 7월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주연 교수
합병증이 무섭다! 대상포진



TV조선 건강다류 신진호 교수
건강을 지배하는 근육 단백질을 충전하라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영 교수
한여름이 더 위험하다! 뇌졸중



SBS 모닝와이드 박창주 교수
젊은층 임플란트 증가

On-Air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창범 교수
복약상담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장성호 교수
젊은 걷기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최호진 교수
젊은 걷기



서울경제[라이프점프TV] 임영호 교수
담배와 '이것' 심장에 최악이에요!

한양대학교병원

이창훈 정형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6월 16일 / 손목터널증후군 고주연 피부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17일 / 합병증이 무섭다! 대상포진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6월 18일 / 재건, SBS [세상에 이런 일이] 6월 18일 신경섬유종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EBS [명의스페셜] 6월 19일 / 전격해부, 고혈압, TV조선 [건강다류] 7월 4일 / 건강을 지배하는 근육 단백질을 충전하라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서울경제[라이프점프TV] 6월 25일 / 담배와 '이것' 심장에 최악이에요! 김현영 신경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저녁] 6월 29일 / 뇌혈관질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월 28일 / 한여름이 더 위험하다! 뇌졸중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6월 30일 / 용혈성요독증후군 윤재훈 소화기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7월 6일 / 췌장암 박창주 치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7월 14일 / 젊은층 임플란트 증가 김유정 안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7월 15일 / 노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18일 / 뱃살과 지방 활활 태우는 운동의 법칙,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7월 22일 / 젊은 걷기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29일 / 복약상담 최호진 신경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7월 22일 / 젊은 걷기 한승훈 재활의학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7월 22일 / 특발성관절염과 속발성관절염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성윤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7월 1일 / 류마티스관절염

2020년 6월 30일(화)



2020년 7월 7일(화)



NEWS
News Paper

2020년 7월 14일(화)



2020년 7월 18일(토)



한양대학교병원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 6월 2일 / 본격 휴가철 앞둔 해수욕장 · 수영장… '깜깜이' 코로나 집단 전파 우려, 국민일보 / 7월 23일 / 코로나19 백신, 어디에 어떻게 분배될까 김희진 신경과 교수 서울신문 / 6월 3일 / 걷거나 서 있을 때 '비틀'… 음주 · 과로 아닌 몸의 '이상 신호', 조선일보 / 6월 5일 / 걱정 줄이세요 치매 옵니다 나재윤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 6월 5일 / '어린이 괴질' 의심받은 가와사키병, 면역 이상 탓… 5세 미만서 주로 발생 고주연 피부과 교수 서울신문 / 6월 10일 / 방심하면 다치는 티눈 · 사마귀 손톱깎이로 뜯다가는 2차 감염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 6월 17일 / 띄악볕 아래 운동 뒤 고열, 물만 마셨다간 근육 경련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서울경제 / 6월 25일 / 심혈관 전문의가 매일 계단을 오르는 이유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한국일보 / 6월 25일 / '햄버거병'이 뭐길래…덜 익은 분쇄육 먹으면 발병 하태경 외과 교수 한국일보 / 6월 30일 / 1기 위암일 경우 70%가 후유증 적은 복강경 수술 이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 7월 2일 / 궁금하지만 알기 어려웠던 '폐암' 궁금증 5가지 / 7월 6일 / 폐암치료, 참난하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여정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조선일보 / 7월 3일 / 겨울철 질환? 뇌졸중 · 비염, 여름에도 주의해야, 한국일보 / 7월 13일 / '머리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파열, 여성이 남성의 1.5배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한국일보 / 7월 7일 / 당뇨발, 재건 수술 땐 기대 수명 2배 늘어나 김유정 안과 교수 한국일보 / 7월 13일 / 눈에도 암이 생긴다? 안구 · 눈꺼풀 · 안와 등에도 나타나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 서울신문 / 7월 15일 / 갑상선암은 착한 암 아닙니다… 방치땐 말기 생존율 40% 정민성 외과 교수 매일경제 / 7월 16일 /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 조정기 비뇨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 7월 18일 / "환자 삶의 질 개선"… 고통 줄이는 전립샘암 치료법 연구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국민일보 / 7월 20일 / HPV 백신, 26세 넘긴 남성은 필요 없을까 안성준 안과 교수 서울신문 / 7월 22일 / 당신의 눈도 감기 걸렸나요? 얼음 찜질 YES · 안대 쓰기 NO 정민성 외과 교수 매일경제 / 7월 23일 / '콕콕' 찌르는 유방통증, 혹시 유방암 신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예수 정형외과 교수 조선일보 / 7월 15일 / 우리 몸의 기둥 '척추' 튼튼해야 건강 바로 선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헤럴드경제 / 7월 16일 / 박원순 사건 '젠더.세대갈등' 확산 조짐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한국경제 / 7월 31일 / 술 한 잔만 마셔도 붉어지는 아시안플러시, 간단히 확인하는 패치 개발 백은정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 7월30일 / 피 부족시대, 전 세계서 각광받는 인공혈액.. 한국은 뒷짐

HANYANG NEWS

2020년 7월 ~ 8월

한양대학교의료원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방호복 600벌 기증받아



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사용해달라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로부터 방호복 600벌을 기증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5일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방호복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증식에서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6개월째 접어들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의료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호복을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도가 크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홍 총재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총재 허재갑)와 지난 7월 21일 한양대학교병원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호친선 및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8회 연속 1등급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8회 연속 1등급을 받아 '급성기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의 명성을 유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7월~12월 급성기뇌졸중을 주상병으로 증상발생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진료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24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본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다"며 "또한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다학제적 치료를 제공하는 뇌졸중 전문치료실 운영을 통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획득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2018년 3월~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전국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본원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 다수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2단계 연구자 선정



의학연구원은 6월 19일 혁신형 의사과학자 7인의 1단계 연구사업 중간성과 발표회와 2단계 연구사업 예비 후보자 11명의 연구주제 발표회를 가졌다.
또, 지난 7월 3일에는 남수연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의 특강과 함께 2단계 연구사업의 3인의 연구자를 선정했다. 3인에는 최성지 소화기내과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화기 이미지 분석 플랫폼 구축), 안성준 안과 교수(망막 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망막질환 진단용 인공지능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이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의 질병 부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공기질 빅데이터와 국가 건강 빅데이터 연계 연구)가 선정됐다.
또한 '젊은 의사과학자'에는 김미미 영상의학과 교수와 차치환 외과 교수가 선정됐다.

2차 환자경험평가, 우수한 성적 받아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6위, 서울지역 2위 기록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6위를 기록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환자경험 평가'는 2019년에 실시한 것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어 총 154개 병원의 만 19세 이상 입원 환자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본원은 평균 87.05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82.7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간호사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등은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평가준비를 진행해왔던 고객진료협력센터 박성열 센터장은 "1차 평가결과 이후 환자들의 의견을 분석해 반영하였고,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한 결과, 이번 2차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며 "특히 '회진시간 알림문자'와 '항상메모' 등의 고객우선 서비스로 입원환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1차 평가 이후 모든 영역에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덕분에 챌린지' 행사 기부물품 받아



본원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덕분에 챌린지' 행사를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덕분에 챌린지'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0년 후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20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20년 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윤호주 병원장과 송순영 부원장을 비롯 관련부서 직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원에서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해 8명의 정년퇴임자(혈액종양내과 이영열 교수, 외과 권성준 교수, 정형외과 이광현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이웅수 교수, 간호국 이숙희 과장, 진단검사의학과 정선태 과장, 원무팀 김종두 계장, 원무팀 이윤선 계장) 모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뇌졸중 환자가 적절하게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8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동수 병원장은 "급성기뇌졸중질환은 무엇 보다 초기 진단과 처치가 중요한 질환으로 골든타임 이내 치료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물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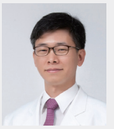
배상철 교수 · 방소영 교수, 류마티스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규명 류마티스 분야 최고 학술지 『류마티스질병연보』 게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방소영 교수가 공동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지난 7월 28일 류마티스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류마티스질병연보』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류마티스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변이 6종과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게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새로운 원인 유전변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김태환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취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가 지난 6월 19일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연수강좌 및 임시총회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이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보관리부원장 임명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이석 교수가 지난 6월 23일 병원의 정보관리 및 연구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한양대학교병원 정보관리부의 부원장에 임명됐다.



성윤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 임명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성윤경 교수가 연구자 교육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 산하 임상연구보호센터의 센터장에 임명됐다.



김봉영 교수,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 선정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가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경력과 연구를 인정받아 미국의료역학회 2020년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됐다.



강보승 교수 저서 『술 한 잔의 의학』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 교수의 최근 저서 『학교도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이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서적으로 선정됐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0년 7월 ~ 8월

YouTube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TV



임영효 교수
심근경색

하태경 교수 / 이항락교수
위암

최찬범 교수
통풍 바로알기

박훈기 교수
노년기근육감소

이형중 교수
뇌동맥류

김유정 교수
안약사용법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s://pf.kakao.com/_WxgaRu

YouTube
'한양대학교의료원(HYUMC)'
https://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s://post.naver.com/hyumc-pr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포스트



고주연 교수 / 김석현 교수 / 김영수 교수 / 김초롱 교수 / 김최진 교수

박정환 교수 / 신진호 교수 / 안성준 교수 / 윤병철 교수 / 이창화 교수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건강카드

이형중 교수 / 장효준 교수 / 윤병철 교수



하태경 교수 / 김정은 교수 / 김연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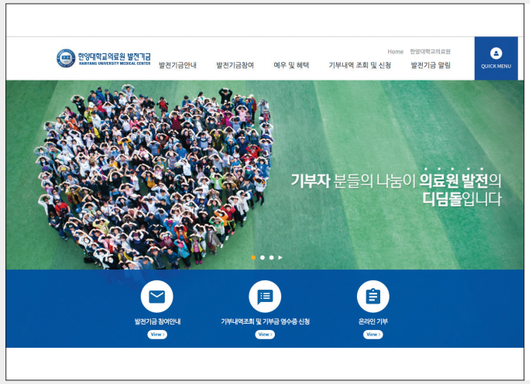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20년 6월 ~ 7월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김도윤	박한기(김옥임)	이봉근	최성환	김병숙	신명희	장경희
	김동윤	박혜경	이상현	최성훈	김애경	신용운	진춘희
우진석	김문성	박희철	이상훈	최완식	김자윤	신정미	천은미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김성재	백운철	이성필	최준석	김창금	안미경	한정연
	김승현	서승표	이승욱	최충혁	김창복	양미영	한현남
민병원	김영호	서우영	이영석	한명훈	김춘애	오기향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김예슬	서정심	이진규	한승훈	김현창	오정님	
	김용호	성명순	이창우	한주희	김황룡	오홍석	
강형구	김윤영	손주현	이창훈	허동렬	김희나	유은희	
장경진	김이석	신대현	이희제	황규태	명영숙	육수영	
1백만원 미만 ~5십만원 이상	김정수	신정철	임종선	**1십만원 미만**	박경숙	윤선미	
	김철웅	신태양	장태원	고병우	박미숙	윤인숙	
고영선	김충현	심경아	전용철	권난희	박미옥	윤향순	
김영애	김태완	심지훈	전재범	권연희	박상혁	음희재	
김호중	김희수	염상철	정규성	권오균	박선영	이경철	
5십만원 미만 ~ 1십만원 이상	남승혁	윤원구	정우성	권유진	박소은	이미경	
	노선균	이경석	정재홍	김경중	박지경	이정희	
강일규	노준모	이경섭	조영훈	김기라	박진희	이현주	
강창남	류기영	이광현	조주열	김나영	방성주	임연희	
강홍구	박원희	이규용	주일한	김대호	서승희	임지영	
공동의	박태선	이두연	최경진	김명환	손진석	임화영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의료원과 동행해주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후원 분야

- **의료원발전기금**: 의료원의 시설, 장비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 **교실발전기금**: 각 교실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진료과발전기금**: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각 진료과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지정기부금**: 원하시는 곳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시는 기부금입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후원 방법

1.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 자동이체(CMS)

3. 급여공제(교직원)

***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 '발전기금 참여' ▷ '온라인 기부' ▷ 약정내용 작성

기부자 예우

후원해 주신 기부자께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제공해 드립니다.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기부증서		●	●	●	●	●	●	●
감사서신, 생일카드		●	●	●	●	●	●	●
의료원 매거진		●	●	●	●	●	●	●
기부자 명부 영구 보전		●	●	●	●	●	●	●
무료 주차				●	●	●	●	●
감사패					●	●	●	●
행사 VIP 초청						●	●	●
의료혜택	우선 진료			●	●	●	●	●
	우선 입원			●	●	●	●	●
	전담 직원				●	●	●	●
	종합검진(부부)			30%	50%	70%	100%	100%
장례식장 감면					20%	30%	50%	100%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다.
-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 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할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않는다.
-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닿았을 경우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닿았을 경우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

상황별 추천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94	KF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❶, 기저질환자❷	(우선) **권장**		**권장**	
생활 방역 상황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❶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❷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4주)	수	간질환
	이항락	금, 토(2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용종,조기암,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토(3주)	목	담낭, 담도, 췌장
	최성지	목	화, 금	담낭, 담도, 췌장
	서원우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여지현	목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수현	토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유찬규	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관홍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허윤성		월,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수, 금	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심혈관중재술,성인선천성심질환
	박진규	월, 토(1주)	화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토(3주)	월, 목, 금	심장질환
	차승주	화, 목, 토(2주)	화, 금	심장질환
	이재원			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홍수진			일반 신장내과질환
	김태훈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1주)	수, 목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손영석	토(1주)	월, 화,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1주)	월, 화	기침,천식,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약물 부작용,면역치료
	박동원	해 외 연 수		
	이 현	목, 금, 토(4주)	수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정승준	월, 수, 토(3주)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김준경	화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월, 화, 목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전종헌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료), 토(1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화(내시경), 목, 금(내시경), 토(1주)	월,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수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김진섭	수, 금, 토(2,4주)	화, 목	소아내분비
	안자혜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육아지도실
	김종덕	월, 화, 토(3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나재윤	월, 수, 토(4주)	화, 수(심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아사끼병, 소아 중환자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안자혜	월~금	화, 목, 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안자혜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해 외 연 수		
	오기욱	월·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토(2주)	월, 금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이상곤	수, 목, 토(1주)	월, 수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어지럼증, 일반 신경과질환
	류창환	금, 토(2주)	화	일반 신경과질환
	성원재	화, 수, 토(3주)		일반 신경과질환
	곽현승	월, 토(4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석현	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4주)	수~금	소아정신의학,소아/성인 ADHD,발달지연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목(1,3주), 금, 토(3주)	목,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금(2,3주), 토(1,4주)	화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고원선			
외과 2290-8444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4주)	월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하태경	화	월(비만),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월	목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복강경, 로봇수술
	최지윤	화	금	혈관외과, 신장이식
	차치환	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소아외과	손준혁	금	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에크모, 심장이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최충혁	월,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교정,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금	수, 금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토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0년 9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이지영		금	
	안지현	수, 목, 토(1주)	화, 금	간종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암,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이재곤	화, 금, 토(3주)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심장내과	신정훈	월, 수, 토(2,4주)	화, 목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주)	월, 수, 금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및 중증하지허혈질환
	김현진	목, 금, 토(1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선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말기신부전클리닉
	이주학	화,수(클리닉),목,토(4주)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부종클리닉
	유미연	월, 수, 토(1,3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금, 토(1,2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월, 화, 토(1,3주)	수,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이혜순	월,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피부근염
	방소영	화, 금, 토(2,4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레이노증후군
	민경민	월, 수, 목, 토(1,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3주)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용	화, 금, 토(1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의학 폐렴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중증근 폐질증, 인공호흡기, 체외심폐보조법(ECMO),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초음파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조민주		금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중환자실 내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 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김현일	월~금	화, 수,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4주)	월	위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원영웅	월, 수, 금	화, 목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허준영	월, 화, 토(1,3주)	수, 목, 금	췌장암(담낭·담관·십이지장·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직장)암, 기타 암, 다발골수증(형질세포종양), 악성림프종, 양성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 미숙아, 영아신경발달
	오재원	수, 금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최영진	월, 토(4주)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양승	수, 토(3주)	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화, 토(2주)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나재윤	금	금	소아심장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손저림,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2,4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1,3주)	월, 수, 금	뇌졸중, 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화보건소(매),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홧병, 우울증
	김대호	화, 목, 토(1,4주)	월, 화, 금(클리닉)	PTSD, EMDR, 불안장애
통증심리클리닉▲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신경영상학, 조현병, 조울증
	김일빈	월, 화, 토(2주)	수, 금	일반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류제일	화, 수, 토(3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방사선수술
	원유덕	화, 금, 토(4주)	수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하병진	목	월	일반신경외과, 두부외상, 척추질환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 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월, 수, 금, 토(1주)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수, 금, 토(3주)	월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금	화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화, 목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조영훈	화, 목	월	견주관절, 스포츠 손상, 회전근개질환, 골절 및 외상
	문준기	화	목, 금	고관절질환 및 외상,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 고관절 관절경 수술, 골다공증
	강병직	월, 수, 토(4주)		정형외과 일반
	김준국	수, 토(2주)	월	정형외과 일반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1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부인암,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이장현	월, 화, 토(1주)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유방성형,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금, 토(3주)	월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목, 토(2,4주)	화, 금	유방성형, 흉터성형, 당뇨족, 미용성형
외과	이홍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족부괴사,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탈장
	박휘겸	월, 목	화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
	김현일		목	중환자, 외상
	조유정	화, 수	금, 토(1,2,3,4주)	소아외과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1,3주)	화, 금	외안부(각막,결막,건성안,눈꺼풀질환), 백내장(외상성, 인공수정체 탈구 및 교환), 굴절교정, 시각장애인 스포츠
	신용운	월, 금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임한웅		화(1,3주)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이정욱	수, 목, 토(2주)	목	성형안과, 일반안과, 백내장
	박승훈	토(4주)	월, 금	망막질환 및 일반안과
피부과	김정수	월, 목, 금(1,3주), 토(2,4주)	월,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중양 및 사마귀성질환, 건선
	서현민	화, 수, 금(2,4주), 토(1,3주)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박형권	월, 수	금	일반 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4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화, 금, 토(2주)	월,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김형규	수, 목, 토(1주)	월, 금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강태욱	토(3주)	화,목,금	이과, 두경부질환 및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경래		수	수면클리닉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종양, 남성과학, 복강경수술
	김규식	월, 토(2,4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발걸음클리닉▲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관절염, 목통증, 발통증), 스포츠 의학, 소아재활, 뇌신경재활, 상지장애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월	금	근골격계재활,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운동치료(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치과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핵의학과	이수진		수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 2020년 9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요통,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4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방지훈	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나민균	목	월, 목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백주열		화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욕창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란숙	월, 수, 토(1,3주)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만성창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류재만		화, 목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해 외 연 수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토(5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금지현	목	화,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안성형
	안성준	수, 금, 토(1,3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문예지		금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월(수술),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토(4주)	월, 수(어지럼증 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민송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선욱	월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토(3주)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소아비뇨기질환
	조정기	월, 금, 토(1주)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토(2주)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홍잉치료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성인형스틸병,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화(경피증클리닉),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경피증,통풍,레이노증후군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성척추염,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골다공증,소그렌병,강직성척추염
	최찬범	화, 수, 금, 토(4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혈관염,전신관절염,베체트병,통풍,루푸스
	조수경	월, 수, 목, 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염증성근병,통풍
	신정민	수, 토(1주)	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연경	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태한	목, 토(3주)	월,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박대진	토(2주)		일반 류마티스질환
	송여진	화, 토(4주)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임현영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이봉근		화	전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최성훈	월		퇴행성척추증,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및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노인성성추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 2290-9550	이오영	목	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건강검진과 외래를 통해 받은 검체의 암유발인자를 검사하는 김성철 임상병리사, 외래에서 응급으로 받은 검체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검사를 위해 늦은 퇴근도 불사합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검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불이 환하게 밝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